

반도체 법안 불확실성 속... 韓, 보조금·시장 진출 시험대

반도체 산업

트럼프, 재집권 시 보조금 축소
해리스, 현행 지원정책 유지 ↑
美 내 반도체 생산 계획 영향 커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25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날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특히나 이번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데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이 서로 대치되는 데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 원), 4억 5000만 달러(62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시간으로 6일부터 본격적인 47대 대선 투표를 실시한다. /뉴스1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두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가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

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이중 527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산업 육성을 위해 확정 배정됐고,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390억 달러와 제조 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연구·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미국 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자한다. 그는 최근 팹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반도체 사업 주도권을 모두 가져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특히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15~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세율 인한 세수 확보 차질로 정부 보

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큰 맥락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법 등은 그대로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은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물이 되자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국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화 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방산·원전 vs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전쟁’... 美 증시 동조화 예상

(트럼프)

(해리스)

국내 증시 영향

코스피·코스닥 변동성 등 확대 예상
해리스 당선 시 국내 주식시장 유리

미국 대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이 대선 결과의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산주와 원전주 등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전망이 유투브나 포털 등에 널려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개인은 매수에 나섰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12.09포인트(0.47%) 하락한 2576.88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2.27포인트(0.30%) 내린 751.81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금융투자세 폐지 가능성으로 상

역대 미국 대선 이후 S&P 500 지수 추이

연도	집권당	대선 다음날	1주 후	한달 후	연말
1980년	공화당	2.12%	1.72%	5.77%	5.21%
1984년	공화당	-0.73%	-2.61%	-4.49%	-1.86%
1988년	공화당	-0.66%	-2.48%	0.52%	0.93%
1992년	민주당	-0.67%	-0.31%	2.38%	3.76%
1996년	민주당	1.46%	2.16%	4.23%	3.72%
2000년	공화당	-1.58%	-3.42%	-6.17%	-7.79%
2004년	공화당	1.12%	2.97%	5.29%	7.20%
2008년	민주당	-5.27%	-10.62%	-15.96%	-10.19%
2012년	민주당	-2.37%	-3.77%	-1.01%	-0.15%
2016년	공화당	1.11%	1.91%	4.98%	4.64%
2020년	민주당	2.20%	5.23%	8.83%	11.48%

자료: CNBC

/뉴스1 그래픽

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라 다시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 확정까지 5일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그 기간 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4일이 소요된 바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개표는 한국 시간 기준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의 접전 상황을 감안할 경우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는 데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시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 무역 정

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규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수혜주 찾기도 활발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금융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취임 이후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방산주와 원전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재임 기간보다 더 강경한 외교 정책을 내세우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한 바 있어, 국내 방산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증권의 황준호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 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원전 테마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2

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가장 큰 그린산업 육성책”이라며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연속성이 확보돼 재생에너지,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모든 영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리스까지 당선되면 효과가 배가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트럼프 당선보다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이웅찬 iM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이미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반영된 상황이라 지수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관세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1.3%, 45개월만에 최저... 배추·무는 50%대 급등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동향’
8~9월 소비자물가 연속 1%대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 오르는 데 그치면서 2개월째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4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다만, 배추·무가 50% 넘게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년 같은 달

과 비교해 15%대의 상승 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3% 올랐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이어오다가 9월(1.6%)에 1%대로 떨어지던 뒤 두 달 연속 1%대 낮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이달 9월 물가상승은

2021년 1월(0.9%)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소 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석유류(-10.9%)가 10%대의 내림세를 보이며 물가안정세를 이끌었다. 2023년 7월(-9.5%) 이후 15개월 사이 최대 하락 폭이다. 석유류 물가는 전월 마이너스로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

가를 0.46%포인트(p) 끌어 내렸다.

과일류도 내렸다. 신선과실 물가가 전년보다 10.7% 떨어졌는데, 품목별로 사과(-20.0%), 포도(-6.5%)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반해, 채소류는 15.6%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특히, 김장재료인 배추(51.5%)와 무(52.1%)가 크게 상승했다. 상추(49.3%), 호박(44.7%), 토마토(21.3%) 등이 크게 오르면서다. 채소류

는 이번 달 물가를 0.25%p 끌어올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채소가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두 달 연속 1%대 물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석유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과일 하락도 영향이 컸다”며 “채소와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석유류랑 과실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